

영유아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 -수도권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 연¹⁾

황혜정²⁾

요약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영유아 어머니 15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보육시설의 94.3%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학부모들은 특별활동이 내용상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영유아들은 평균적으로 2.6개 정도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외국어와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특별활동 비용으로 국공립시설의 경우 40,000원 정도, 민간시설의 경우 75,000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학부모의 67%가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특별활동의 효과검증,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보완, 부모교육, 특별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특별활동, 보육시설, 정책제언

1) 경기대학교 강사

2) 경기대학교 교수

I.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사회적 불균형과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화 및 다원화 사회를 맞이하여 근로인력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정은 그동안 담당했던 자녀교육과 보육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가정을 대신하여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해 줄 시설의 필요성이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의 다양한 확대와 제도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김연진·이상희, 2008).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현상에 의한 자녀 수 감소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고, 영유아의 경험과 발달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는 보다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영유아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장미경 외, 2006). 이러한 양상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에 관심을 갖게 하며, 이에 따라 정규보육과정 및 이와 관련한 교육과 보육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은 사회계층 및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조기교육의 과열 양상을 부추기고, 특기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을 받고 있는 영유아 수의 증가를 가져왔으며(손학님, 2004; 장영희, 2002), 부모들이 자녀의 보육시설 선정의 조건으로 다양한 특기 교육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고 있다(김법정, 2005)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육과정으로 운영하던 보육시설들은 부모들의 교육적 요구와 전문성을 갖춘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여 특별활동을 점차 시행, 확대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정화·정선화·이명조, 2003). 그러나 2005년 유아교육 시행계획에 따르면 유아의 발달에 부적합한 특별활동을 근절토록 명시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5), 2007년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서에서도 특별활동을 보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이미화·김은영, 2007) 앞으로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과정의 정립뿐 아니라 정규보육과정과 조화를 이루는 특별활동에 대한 합의적 정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유아보육시설의 특별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부모들이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취미

나 특기가 신장되고 학습심화 및 보충지도에 효과적이며 생활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김법정, 2005; 박수진, 2001, 유희, 2006). 또한 부모들은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킴으로서 육아부담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경제적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선호한다고 하였다(김남희, 2003). 한편, 교사들도 특별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재능과 소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아기의 특별활동 경험이 초등학교 정규수업과의 연계와 그에 대비한 학습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명순, 2007).

이러한 긍정적 견해와는 달리 현행 특별활동이 보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김영옥, 2007),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한 원아모집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정화·정선아, 2004). 특별활동의 내용과 보육과정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선택권, 발달권, 놀 권리 등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상업성의 산물이며, 그 효과도 검증되지 않고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을 위한 전문교사와 시설의 부족,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명·서영숙, 2006). 몇몇 유아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들이 정규보육과정보다 특별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어 보육(교육)과정을 도외시키는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교과식의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리고 이를 원아모집을 위한 홍보에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유아기관들이 원아모집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유아교육학자들은 유아들이 발달적,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조기/특기교육을 받음으로써 인지적, 정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며, 과도한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열풍은 우리 사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기/특기교육 기관이나 산업체들이 난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있다(우남희·현은정·이종희, 1993).

유아의 발달과 학습특성에 적합한 교육은 유아의 학습과 발달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근접발달지대에서의 교육을 의미한다. 즉 유아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여 갈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인이나 또래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학습 경험을 주도하여 가는 교육이다. 그러나 특별활동은 성인의 학업적, 기능적 요구에 의해 유아의 학습을 촉진하므로 성인중심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단계별 학습을 강조하게 되어 유아가 자신의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이정화·정선아·이

명조,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양립하는 가운데 부모의 요구와 보육시설의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 점차 심화·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시설 영유아의 보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으로 보육시설에서 운영해야 할 표준보육과정(2007)을 제시한 바 있으며, 육아정책개발센터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이미화, 김은영, 2007). 그러나 이러한 표준보육과정의 보급이 특별활동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실태 파악과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보육과정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태는 어떠한가?
 - 1) 특별활동 실시 여부는 어떠한가?
 - 2) 특별활동 참여 동기는 어떠한가?
 - 3) 특별활동 종류는 어떠한가?
 - 4) 특별활동 운영 형태는 어떠한가?
 - 5) 특별활동 비용은 어떠한가?
2. 영유아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 1)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2)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 3) 특별활동에 대한 개선점 및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보육시설과 학부모를 1:1 대응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선정된 보육시설은 총 156개소이며, 각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어머

니 1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국공립시설은 24개(15.4%)소이며, 민간시설(가정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 포함)은 132개(84.6%)소이다. 연구대상 보육시설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보육시설 유형 분포

보육시설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계
빈도(f)	24	132	156
비율(%)	15.4	84.6	100.0

연구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63명(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이 49명(31.4%)으로 가장 많았으나 초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101명(64.8%)으로 나타나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실태는 전업주부가 92명(5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8시간 이상 근무자가 21명(13.5%)이며 그 외의 취업모는 8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에 재원 중인 유아의 연령은 만 4세가 48명(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3세 미만의 영아가 27명(17.3%)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N=156)				
		범위	f	%	범위	f	%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17	10.9	전업주부 시간제(오전) 시간제(오후) 8시간 8시간 이상 무응답	92	59.0	
		31~35세	63	40.4		12	7.7	
		36~40세	53	34.0		8	5.1	
		41~45세	15	9.6		18	11.5	
		46세 이상	3	1.9		21	13.5	
	무응답	5	3.2	무응답	5	3.2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졸업	49	31.4	자녀 연령	만 3세 미만	27	17.3
		전문대졸업	48	30.8		만 3세	28	18.0
		대학졸업	43	27.6		만 4세	48	30.8
		대학원이상	10	6.4		만 5세	47	30.1
		무응답	6	3.8		무응답	6	3.8

2. 연구도구

영유아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태와 어머니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박수진(2001), 김법정(2005), 김지혜

(2008)의 연구와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 특별활동 실태, 특별활동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구성된 설문지는 유아교육 전공 교수 1인과 대학원 이상 학력의 현장 경험자 3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예비조사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제시된 특별활동 참여 과목 및 종류수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나타나 범위를 넓게 수정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 예시가 유사하여 혼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문항을 수정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보육시설은 총 170개였으며, 각 보육시설의 학부모를 섭외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특별활동 실태에 대하여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영유아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태

가. 특별활동 실시 여부

영유아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시 여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하여 각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총 156시설 중 147시설로 전체의 94.3%가 실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공립 시설은 24시설 중 22시설로 91.7%, 민간시설은 132 시설 중 125시설로 94.7%의 실시율을 보였다. 두 시설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시설별 특별활동 실시여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343, p > .05$)(표 3 참조). 즉 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이 특별활동을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표 3> 보육시설 유형별 특별활동 실시 여부

실시여부	국공립시설 f(%)	민간시설 f(%)	계 f(%)	χ^2
미실시	2(8.3)	7(5.3)	9(5.7)	.343
실시	22(91.7)	125(94.7)	147(94.3)	
계	24(100.0)	132(100.0)	156(100.0)	

나. 특별활동 참여 동기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에 대하여 참여 동기를 알아본 결과,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교육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국공립 31.8%, 개인민간 3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별활동 과목이 정규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국공립이 27.3%, 개인민간이 23.6%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의 경우는 어머니의 늦은 퇴근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18.2%였으며, 개인민간은 특기교육을 위해 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시설의 특별활동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8.9%였다. 이에 대한 두 시설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4.260, p > .05$)(표 4 참조).

<표 4> 특별활동 참여 동기

참여 동기	국공립시설 f(%)	민간시설 f(%)	계 f(%)	χ^2
특별활동 내용이 필요한 교육이어서	7(31.8)	41(32.3)	48(32.2)	4.260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6(27.3)	30(23.6)	36(24.2)	
특기교육을 위해 이동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3(13.6)	24(18.9)	27(18.1)	
어머니의 늦은 퇴근으로 어쩔 수 없어서	4(18.2)	11(8.7)	15(10.1)	
보육시설 관계자(원장, 교사)의 권유로	2(9.1)	9(7.1)	11(7.4)	
아이가 원해서	0(0.0)	7(5.5)	7(4.7)	
귀가 후 특기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0(0.0)	5(3.9)	5(3.4)	
계	22(100.0)	127(100.0)	149(100.0)	

다. 특별활동 실시 종류

1) 특별활동 실시 종류 수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종류수가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공립과 민간시설 모두 3~4 종류를 실시하는 경우가 각각 62.5%, 5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2 종류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국공립은 25.0%, 개인민간은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6 종류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는 국공립 시설이 12.5%인 것에 비해 민간시설은 23.1%로 나타나 민간시설이 더 많은 종류의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chi^2 = 1.982, p > .05$), 특별활동 실시 종류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특별활동 실시 종류 수

종류 수	국공립시설 f(%)	민간시설 f(%)	계 f(%)	χ^2
1~2 종류	6(25.0)	32(24.6)	38(24.7)	1.982
3~4 종류	15(62.5)	68(52.3)	83(53.9)	
5~6 종류	2(8.3)	26(20.0)	28(18.2)	
7 종류 이상	1(4.2)	4(3.1)	5(3.2)	
계	24(100.0)	130(100.0)	154(100.0)	

2) 특별활동 참여 종류 수

먼저, 영유아 1인당 참여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수를 알아본 결과, 평균 2.6개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국공립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평균 2.8개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민간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는 평균 2.6개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에 유아가 참여하는 과목수가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공립 시설의 유아는 2과목에 참여하는 유아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과목과 3과목이 각각 21.7%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시설은 1과목 참여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과목이 24.1%, 3과목이 23.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두 시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chi^2 = 13.379, p < .05$),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특별활동 참여 과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

공립 시설의 유아가 민간시설의 유아보다 더 많은 종류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특별활동 참여 종류 수

종류 수	국공립시설 f(%)	민간시설 f(%)	계 f(%)	χ^2
1 종류	5(21.7)	39(30.5)	44(29.1)	13.379*
2 종류	7(30.4)	31(24.1)	38(25.2)	
3 종류	5(21.7)	30(23.4)	35(23.2)	
4 종류	3(13.0)	16(12.5)	19(12.6)	
5 종류 이상	3(13.0)	12(9.4)	15(9.9)	
계	23(100.0)	128(100.0)	151(100.0)	

*p < .05

3) 특별활동 실시 종류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종류와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국공립시설의 경우는 유아체육, 태권도, 수영, 발레와 같은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유아가 34.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외국어로 영어가 28.3%, 피아노, 바이올린, 국악과 같은 음악 활동과 과학 활동이 각각 9.4%, 교구를 활용한 활동이 7.5%, 종이 접기와 만들기, 그리기 등의 미술활동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시설의 경우는 영어가 2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체육활동이 19.3%, 미술활동 13.3%, 교구활동 12.3%, 음악활동이 11.1%, 한글 7.3%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특별활동 종류 (복수응답)

특별 활동 내용	국공립시설 f(%)	민간시설 f(%)	계 f(%)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15(28.3)	77(24.4)	92(24.9)
체육(태권도, 수영, 발레 등)	18(34.0)	61(19.3)	79(21.4)
미술(종이접기, 만들기, 그리기 등)	3(5.7)	42(13.3)	45(12.2)
교구활용(가베, 오르다, 레고닥터 등)	4(7.5)	39(12.3)	43(11.7)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국악 등)	5(9.4)	35(11.1)	40(10.8)
한글	1(1.9)	23(7.3)	24(6.5)
과학	5(9.4)	10(3.2)	15(4.1)
수학	1(1.9)	12(3.8)	13(3.5)
카드프로그램(시씨다, 칼비테, 글렌도만 등)	0(0.0)	6(1.9)	6(1.6)
한자	1(1.9)	4(1.3)	5(1.4)
구연동화	0(0.0)	4(1.3)	4(1.1)
기타(영재, 리더십 등)	0(0.0)	3(0.9)	3(0.8)
계	53(100.0)	316(100.0)	369(100.0)

4) 특별활동 운영 형태

가) 특별활동 실시 시간

영유아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시간대를 알아본 결과, 국공립의 경우 45.3%가 오후 정규시간에, 43.4%가 오전 정규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의 경우는 48.7%가 오전 정규시간에, 46.4%가 오후 정규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전과 오후 정규시간에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는 국공립시설은 11.3%, 민간시설은 4.9%로 나타났으나(표 8 참조),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에 대한 시설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7.608, p > .05$).

<표 8> 특별활동 실시 시간

실시 시간	국공립시설 f(%)	민간시설 f(%)	계 f(%)	χ^2
오전 정규 시간	23(43.4)	148(48.7)	171(47.9)	3.405
오후 정규 시간	24(45.3)	141(46.4)	165(46.2)	
오전, 오후 시간 모두	6(11.3)	15(4.9)	21(5.9)	
계	53(100.0)	304(100.0)	357(100.0)	

나) 특별활동 실시 횟수

특별활동의 실시 횟수를 알아본 결과, 국공립과 민간시설 모두 주1회 실시가 각각 69.8%와 5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 2회 실시가 국공립과 민간시설 각각 22.6%, 23.8%, 주 3회 실시가 각각 3.8%, 10.7%, 주 5회 실시가 각각 3.8%, 9.7%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이에 대한 시설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6.592, p > .05$).

<표 9> 특별활동 실시 횟수

횟수	국공립시설 f(%)	민간시설 f(%)	계 f(%)	χ^2
주 1 회	37(69.8)	163(54.7)	200(57.0)	6.592
주 2 회	12(22.6)	71(23.8)	83(23.6)	
주 3 회	2(3.8)	32(10.7)	34(9.7)	
주 4 회	0(0.0)	3(1.0)	3(0.9)	
주 5 회	2(3.8)	29(9.7)	31(8.8)	
계	53(100.0)	298(100.0)	351(100.0)	

다) 특별활동 소요시간

특별활동 소요시간은 국공립의 경우 21~30분이 5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1~50분이 17.6%, 10~20분이 15.7%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민간의 경우는 21~30분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20분이 16.2%, 51~60분이 14.3%, 3~40분이 14.0%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21~30분 동안 실시되는 경우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별활동 소요시간에 대한 시설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chi^2 = 10.967, p < .05$) 국공립 시설보다 민간 시설의 소요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10> 특별활동 소요시간

시간	국공립시설 f(%)	민간시설 f(%)	계 f(%)	χ^2
10~20분	8(15.7)	43(16.2)	51(16.0)	10.967*
21~30분	29(56.9)	112(42.3)	141(44.2)	
31~40분	1(2.0)	37(14.0)	38(11.9)	
41~50분	9(17.6)	35(13.2)	44(13.8)	
51~60분	4(7.8)	38(14.3)	42(13.2)	
계	51(100.0)	265(100.0)	319(100.0)	

*p < .05

라) 특별활동 지도교사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내부 교사가 36.3%였으며, 외부의 전문교사가 6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국공립의 경우 내부교사가 18.9%, 외부교사가 81.1%였으며, 민간시설의 경우는 내부교사가 39.3%, 외부교사가 60.7%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수의 특별활동 지도교사가 외부의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시설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 시설이 민간시설보다 외부 전문교사에 의한 특별활동 실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 = 8.725, p < .01$)(표 11 참조).

<표 11> 특별활동 지도교사

	국공립시설 f(%)	민간시설 f(%)	계 f(%)	χ^2
시설 내부 교사	10(18.9)	121(39.3)	131(36.3)	8.725**
외부 전문 교사	43(81.1)	187(60.7)	230(63.7)	
계	53(100.0)	308(100.0)	361(100.0)	

**p < .01

마) 특별활동 비용

유아 1인당 평균 특별활동 비용을 살펴보았다. 국공립의 경우 유아 1인의 특별활동 소요 비용은 평균 40,375원이며, 최저 15,000원부터 최고 75,000원까지 분포되어 있다. 민간시설은 평균 74,675원이며, 최저 15,000원부터 최고 175,000원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t = 2.310, p < .05$),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의 특별활동 소요비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시설의 특별활동 경비가 국공립 시설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표 12 참조).

<표 12> 유아 1인 특별활동 비용

기관	평균(원)	표준편차(원)	최소값(원)	최대값(원)	t
국공립시설	40,375	20,866	15,000	75,000	2.310*
민간시설	74,675	41,322	15,000	175,000	

* $p < .05$

2. 영유아보육시설의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가.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 특별활동의 필요성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준을 알아본 결과 67.3%의 부모들이 특별활동이 꼭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특별활동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7.7%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5.0%로 나타나 영유아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모들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특별활동의 필요성

필요성 정도	f	%
꼭 필요하다	9	6.1
필요하다	90	60.8
잘 모르겠다	22	14.9
별로 필요하지 않다	24	16.2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3	2.0
계	148	100.0

2) 특별활동이 필요한 이유

영유아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특별활동이 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6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특기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7%, 유아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와 정규보육과정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7.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4> 특별활동이 필요한 이유

내 용	f	%
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므로	83	68.6
저렴한 비용으로 특기교육을 시킬 수 있으므로	17	14.1
유아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9	7.4
정규 보육과정만으로는 부족해서	9	7.4
부모님의 보육편의를 위해서(직장문제 등)	3	2.5
계	121	100.0

3) 특별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영유아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부모들은 특별활동 비용이 교육 효과에 비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별활동 수준에 유아의 발달 수준이 반영되지 않아서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29.6%, 정규 보육과정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14.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표 15> 특별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내 용	f	%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	37.1
유아의 발달 수준이 반영되지 않아서	8	29.6
정규 보육과정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4	14.8
유아의 흥미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3	11.1
특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2	7.4
계	27	100.0

4)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문제

가)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문제 유무

특별활동 실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문제가 있다

고 응답한 경우는 34.0%였으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2.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34.0%인 것으로 나타나, 특별활동 실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표 16 참조).

<표 16> 특별활동에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내 용	f	%
문제 있다	50	34.0
잘 모르겠다	50	34.0
문제 없다	47	32.0
계	147	100.0

나) 특별활동의 문제점

현재 참여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아수준의 흥미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별활동 교육비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25.8%, 학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2%였다. 또한 시설 및 교재교구의 부족과 담당교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표 17> 특별활동의 문제점

내 용	f	%
유아 수준의 흥미가 고려되지 않음	37	28.9
특별활동 교육비가 많다	33	25.8
학부모의 과도한 기대	22	17.2
담당교사의 자질	18	14.1
시설 및 교재교구의 부족	18	14.1
계	128	100.0

다) 특별활동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

(1) 특별활동의 개선점

특별활동의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내용의 내실화에 응답한 경우가 25.4%, 담당교사의 자격과 자질 함양으로 응답한 경우가 18.3%, 비용의 저렴화가 필요하다에 응답한 경우가 14.8%, 특별활동의 다양화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9.9%, 학부모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에 응답한 경우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표 18> 특별활동의 개선점

내 용	f	%
교육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37	26.1
교육 내용의 내실화	36	25.4
담당교사의 자격과 자질 함양	26	18.3
비용의 저렴화	21	14.8
특별활동의 다양화	14	9.9
학부모의 인식변화	8	5.6
계	142	100.0

(2) 특별활동의 발전방향

특별활동의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유아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8.3%,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정규교육의 확장과 보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4.8%, 유아의 재능을 조기에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4.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표 19> 특별활동의 발전방향

내 용	f	%
유아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	62	42.8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유아가 균등한 기회를 갖는 것	41	28.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정규교육의 확장과 보충	36	24.8
유아의 재능을 조기에 개발하는 것	6	4.2
계	145	100.0

IV. 논의 및 정책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실태 파악과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바람직한 교육·보육과정을 위한 정책대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이에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1.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에 대한 논의

영유아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시 여부에 대하여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시설의 94.3%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중 국공립 시설은 91.7%, 민간시설은 94.7%의 실시율을 보였으며, 두 시설별 실시여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참여 동기는 특별활동 교육내용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국공립시설 31.8%, 민간시설 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별활동 과목이 정규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국공립이 27.3%, 민간이 23.6%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종류 수는 국공립과 민간시설 모두 3~4 종류를 실시하는 경우가 각각 62.5%와 52.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2 종류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국공립은 25.0%, 민간은 24.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과목 수는 국공립시설 경우는 2과목에 참여하는 유아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과목과 3과목이 각각 21.7%로 많았다. 민간시설은 1과목 참여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과목이 24.1%, 3과목이 23.4%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의 내용과 참여 빈도는 국공립 시설의 경우,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유아가 34.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영어가 28.3%, 음악 활동이 9.4%, 교구를 활용한 활동이 7.5%, 미술활동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시설의 경우는 영어가 2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체육활동이 19.3%, 미술활동 13.3%, 교구활동 12.3%, 음악활동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시간대는 국공립의 경우 43.4%가 오전 정규시간에, 32.1%가 오후 정규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시설의 경우는 48.7%가 오전 정규시간에 23.0%가 오후 정규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 시간외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국공립시설은 13.2%, 민간시설은 23.4%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의 실시 횟수는 국공립과 민간시설 모두 주1회 실시가 각각 69.8%와 54.7%로 가장 많았으며, 소요시간은 국공립, 민간 모두 21~30분이 56.9%와 42.3%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한 시설별 차이는 특별활동 운영 시간대와 횟수는 국공립과 민간시설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소요시간은 민간시설이 국공립 시설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내부 교사가 36.3%였으며, 외부의 전문교사가 6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국공립의 경우 내부교사가 18.9%, 외부교사가 81.1%였으며, 민간시설의 경우, 내부교사가 39.3%, 외부교사가 60.7%인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 시설이 외부의 교사에 의해 특별활동이 더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에 대한 영유아 1인의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는 평균 40,375원, 민간시설은 평균 74,675원으로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의 특별활동 비용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먼저 특별활동 실시 여부는 조사대상 94.3%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특별활동 실시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에는 보육시설의 74.6%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서문희, 2002), 유치원은 약 90%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기숙 외, 2002). 또한 육아정책개발센터의 2007년 연구(김영옥, 2007)에서도 보육시설의 95.4%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별활동 실시 종류도 2005년과 2007년 조사에서는 1~2 종류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이미화·김은영, 2008) 반면, 본 연구에서는 3~4 종류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활동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활동 과목은 본 연구에서는 영어가 가장 많았고 체육, 음악, 미술 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선행연구(서문희, 2002; 이기숙 외, 2002; 이미화·김은영, 2008; 허명순, 2007)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특별활동 운영 시간대는 85~94% 이상이 정규시간 내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 보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아 1인당 평균 비용이 국공립의 경우 40,375원, 개인민간은 74,675원으로 나타나, 2007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보고된 비용(약 18,000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 유아가 참여하는 과목수가 2007년의 1~2 가지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의하면 특별활동에 참여한 유아의 약 70%가 2~3가지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용이 큰 차이가 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본 연구에서 특별활동 비용을 보육시설로부터가 아닌 학부모로부터 조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동안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 비용을 조사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비용산출이 가능했다고 보인다.

특별활동 지도교사는 시설의 내부교사가 36.3%, 외부의 전문교사가 63.7%로 나타나 외부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기숙 외(2002), 이미화와 김은영(2008)이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외부교사의 시설 내 교육시간의 증가는 시설 내부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특별활동 운영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의 종류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유아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의 교육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67.3%의 부모들이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특별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7.7%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5.0%로 나타나, 부모들은 특별활동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특별활동이 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6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특기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7%, 유아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와 정규보육과정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특별활동 비용이 교육 효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별활동 교육수준에 유아의 발달 수준이 반영되지 않아서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29.6%, 정규 보육과정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실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0%였으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2.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3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아수준의 흥미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별활동 교육비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25.8%, 학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2%였다. 또한 시설 및 교재교구의 부족과 담당교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내용의 내실화가 25.4%, 담당교사의 자격과 자질 함양이 18.3%, 비용의 저렴화가 14.8%, 특별활동의 다양화가 9.9%, 학부모의 인식변화에 응답한 경우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유아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3%,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정규교육의 확장과 보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4.8%, 유아의 재능을 조기에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 제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몇 가지 면에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 따르면 특별활동 실시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영유아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시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활동이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은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특별활동의 효과에 대해서 선행연구(유희, 2006)는 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취미나 특기가 신장되고 생활태도의 신장과 태도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허명순, 2007). 그러나 학부모 만족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자녀의 흥미를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특별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잠재능력의 계발, 장래 전문성을 위한 기초적이고 기술적인 능력 다지기, 초등학교 정규수업에 대한 학습준비 등에 대한 성취도는 조사되어진 바가 없다. 김법정(2005)의 연구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특별활동의 교육내용과 유아들의 성취도나 평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실행되고 있는 특별활동의 내용과 활동방법을 살펴보면 특별활동이 자녀의 흥미를 더해줄 수는 있어도 주 1~2회, 20~30분 동안의 대집단 활동이 잠재능력의 계발이나 전문성을 위한 기초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을 다져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정화와 정선아(2004)의 연구에서도 시설장들은 유아가 특별활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지식이 그다지 크게 증가되지 않으며, 학부모가

기대한 만큼의 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대부분의 특별활동이 내실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교육을 강조하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부모들은 특별활동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이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왠지 뒤쳐질 것 같은 불안감에 특별활동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현재 실행되고 있는 특별활동의 문제점으로 학부모들은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특별활동 교육비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래서 개선점으로는 영유아들의 조화로운 전인발달과 학습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특별활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교육비의 저렴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일이다. 학부모들은 특별활동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능력이 계발되고 함양되기를 기대하지만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경험으로 관심과 흥미를 줄 수는 있어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활동의 전문성에 대한 강조는 시설내부 교사보다는 외부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져오고 이에 따르는 학부모와 시설장의 경제적 부담감은 당연한 귀결점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외부의 특별활동 지도교사는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의 발달 수준에 부적합한 상호작용과 교수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의 흥미 또한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보육활동은 진행되는 주제를 기초로 연령별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영역별 활동의 통합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활동은 분리된 교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 프로그램의 활용이 실용화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특별활동 지도가 외부의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보육교사는 특별활동 지도교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져 보육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혼란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활동의 확대는 정규보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주며, 교사의 지위와 역할에도 상당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특별활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실증적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갖는 막연한 기대가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현재 특별활동 운영 시간대는 대부분 정규 교육·보육시간에 실시되고 있으며, 상당부분 보육과정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유아보육시설이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는 표준보육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약 70%정도가

시설 외부교사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 내부교사의 역할과 영유아보육시설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어린이집 교사는 특별활동의 종류가 점점 증가하다보니 이제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특별활동 시간을 관리해 주면서 특별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략해 버렸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유아교육 시행계획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부적합한 특별활동을 근절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5), 2007년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도 특별활동을 보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미화·김은영, 2007). 또한 보육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제시한 평가인증의 지표에는 보육과정과 상호작용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활동이 가지는 여러 가지 폐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별활동 운영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활동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막연히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원아모집을 위해 효과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특별활동이 아니라,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시해야 하는 특별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효과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보육시설 자체 내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이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를 실시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학부모의 요구에 근접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별활동이 보육과정의 상당부분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시를 이대로 간과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이를 포용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표준보육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취학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제안으로 표준보육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할 것을 지적하였다(조성연·김혜금·신혜원, 2009). 즉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특별활동의 개념과 교육수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영유아의 연령별로 언어교육프로그램, 신체발달프로그램, 사회정서발달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분별한 조기교육의 폐단과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대한 부모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 원하나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키우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 특별활동이 정규보육 과정을 대체할 만큼 사교육에 대한 열풍이 부는 것은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특별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특별활동은 이제 정규보육과정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다고 하지만 특별활동의 내용이나 참여여부에 있어서 학부모는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특별활동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보육비가 감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결국 보육비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특별활동을 보육시설의 재량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5). 유아교육 시행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김남희(2003).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일제 프로그램에 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법정(2005). 사립유치원의 특별활동에 대한 어머니 요구조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연진·이상희(2008). 아동복지의 이해. 서울: 태영출판사.
- 김영명·서영숙(2006). 보육시설과 유치원 특별활동의 현안과 쟁점: 발달의 적합성과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15-136.
- 김영옥(2007).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모색.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지혜(2008).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태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특기 교육에 관한 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서문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정책보고서 2002-3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학남(2004).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들의 조기교육 실태 및 부모 인식 비교 분석.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우남희·현은정·이종희(1993). 사설학원과 가정중심의 조기교육 실태연구. **유아교육연구**, 13(1), 49-62.

유희(2006).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실태 및 교사 만족도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한국아동학회지**, 23(4), 137-152.

이미화·김은영(2007).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이미화·김은영(2008).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 **유아교육학논집**, 12(1), 61-80.

이정화·정선아(2004). 사립유치원 원장이 바라보는 특별활동 운영의 의미. **열린 유아교육연구**, 8(4), 69-87.

이정화·정선아·이명조(2003). 사립유치원의 특별활동 실태와 문제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85-118.

장미경·이상희·윤미원·정민정·손금옥(2006). 보육학개론. 서울: 태영출판사.

장영희(2002). 조기특기교육-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것인가? **교육개발**, 133, 34-39.

조성연·김혜금·신혜원(2009). 학령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조사와 이를 통한 보육정책대안: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9), 1-14.

허명순(2007).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사회계층별 부모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논문접수 2009년 11월 23일 / 수정본 접수 12월 24일 / 게재 승인 12월 29일
- 교신저자: 황혜정, 경기대학교 교수, jinhwang@kyonggi.ac.kr

ABSTRACT

A Study on Extra Curricular Activities in Child Care Centers-on the basis of parents' perceptions in Seoul and Gyeonggi-Do-

Kim, Yeon
Hwang, Hye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extra curricula activities at child c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The data were obtained with 156 parents' perceptions. The study showed that 94.3% of child care centers run extra curricula activities and children participated in 2.6 extra curricula activities on average. They mainly participated in foreign language and athletic activities. They spent about 40,000 won at public child care centers and about 75,000 won at private child care centers each month. The survey also showed that the major purpose of extra curricula activities was to provide various experiences for children. This study proposed som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test of effectiveness of extra curricula activities, modification of the national child care curriculum, education for parents, and preparation for guidelines.

Key words: extra curricular activity, child care center, policy suggestion